

한·미·일 “북 완전한 비핵화 긴밀 협력”

합참의장 회의 처음 서울서 열려
북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개발 규탄
해군2함대 찾아 천안함 46용사 추모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명수(해군대장) 합참의장과 덴 케인(공군대장)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육상자위대 대장)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이 참석했다. ▶관련 기사 3면

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불안정을 일으키는 북한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김명수(가운데) 합참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서 덴 케인(왼쪽)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재호 기자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의장은 “3국을 순환해 올해 한국에서 회의가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

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 통합막료장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공고해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케인 미 의장도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등 다양한 다영역 연합훈련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세 나라의 안전과 안보, 나아가 이 지

역과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는 역지력을 재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3국 간 삼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우리 결의를 보여주고, 파트너십을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계층의 지휘관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도록 해야 하며, 3국이 보유한 최고의 전투 역량과 능력을 결집해 ‘오늘 밤이라도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이번 회의의 참석 목적에 대해 △한·미·일 방위 협력이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화 추진 △3국의 굳건한 결속을 대내외 명시,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이 되기 위한 3국의 협력 등을 들었다.

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은 내년 미국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친 후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2010년 3월 산화한 천안함 46명의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해군2함대를 함께 방문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아미 기자



육군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도 해상훈련장에서 해상침투훈련을 전개했다. 귀성부대 특전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활용해 해상침투훈련을 하고 있다. 김병문 기자

30도 넘는 찜통더위 뚫고 신속하고 은밀하게 해상침투

육군특전사 귀성부대 구슬땀 훈련
체력단련·침투장비 운용능력 검증
완벽한 팀워크로 임무 완수 자신감

땅과 바다, 하늘을 넘나드는 전천후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검은베레 특전사’가 무더위와 싸우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귀성부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충남 태안

군 안면도 해상훈련장에서 해상침투훈련을 전개했다. ▶관련 기사 4·5면

특전대원의 해상침투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훈련은 △체력단련 △전투수영 △침투장비 운용능력 검증 △해상침투 FTX 등으로 구성됐다.

특전대원들은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속에서 매일 10km 해안 달리기, PT 체조, 오리발차기 등을 하며 전투체력을 향상했다. 이어 팀별로 바다에 뛰어들어 장거리

전투수영을 하고, 특수작전에 필요한 해상 침투 절차를 반복 숙달했다.

특히 훈련 사흘 차인 지난 9일엔 전시 동원선박을 활용,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이합 훈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고무보트 등 침투자산을 모선(母船)에서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탈하는 절차를 숙달했다.

특전대원들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평소 훈련한 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부여된 임무를 신속히 수행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였다.

훈련을 지휘한 유선민(중령) 황소대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상침투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유사시 국가급 전략·신속대응부대로서 부대별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전사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혹서기 안전대책에 유의한 가운데 교육훈련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원준 기자